



여기, 호남야구의 심장... 가슴이 뚫린다

광주시·시민·구단 한마음... '기아챔피언스필드' 8일 개장

광주 새 야구장 '광주-기아(KIA) 챔피언스 필드'가 오는 8일 드디어 문을 연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개장식 행사로 '시민 화합 야구 대축제'를 개최한다.

〈챔피언스필드의 모든 것 3면〉
시는 이날 야구장 입구에 KIA 타이거즈의 코리아시리즈 11승을 기원하

는 나무 11그루도 심는다. 대축제로서 야구장 투어와 축하공연 등을 비롯한 연예인 야구단 '할'과 아마추어 야구단의 경기, 옛 타이거즈 스타가 대거 참여한 '타이거즈 레전드'와 광주 고교 야구단 올스타의 경기도 열린다.

새 야구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7646㎡, 관람석 2만2262석 규모이며, 2011년 11월부터 3년여 동

안 공사비 994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스포츠 토토 복권 기금(298억원)과 KIA(300억원)에서 조성 비용을 지원받아 공사비 부담을 대폭 낮췄다. 새 야구장의 가장 특징은 야구 선수가 아닌 관중(시민) 중심으로 조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관람석과 홈 플레이그라운드 거리를 국내 야구장 중 가장 짧은 18.5m로 조성해 생동감

넘치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장에 친환경 구조장으로 꾸며졌으며, 여성과 장애인을 최대한 배려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야구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전 국민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갖춘 야구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야구장의 공식 첫 경기는 4월1일 KIA-NC전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초선거 '무공천의 그늘'

유권자는 혼란... 선거판은 혼탁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돈·조직 선거 등의 혼탁 선거까지 우려되고 있다.

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출세유기 공천·돈 공천 등의 정당 공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치권이 대선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무공천'이 사실상 유권자들의 혼란 초래와 함께 혼탁선거 우려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당이 후보를 검증한 뒤 본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했던 기존 방식에서 유권자 스스로 후보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 수가 적거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조직과 돈을 앞세운 '토호 세력'들의 힘겨루기로 번질 수 있고, 후보 단일화 과정의 뒷거래 등 갖은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에 따라 무공천이 된 목표·광양·완도 등을 비롯한 일부 전남지역 군수 선거

지방선거 D-90

정당 1차 검증과정 빠져

벌써 돈·조직선거 고개

후보검증단 등 보완 필요

의 경우 임지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등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구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너무 많은 후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일화도 사실상 힘들어 10여 명의 후보자들의 경력 및 인물 필름이 등 면면을 검증해야 하는 유권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택시기사 정모(61)씨는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은 사라졌지만, 정당에서 인물을 검증해 주지 않아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선택하기 힘들어졌다"며 "돈 공천 등 정당 공천 폐해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단점을 보완해야지, 책임 없는 '무공천'은 정당정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돈 선거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 시장 입지를 내사하고 있는 등 선거가 조기 파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도 부실해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는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각 정당이 내놓던 핵심공약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기초단체장 비리가 터질 경우, 정당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정당과 기초단체를 연결해주던 정당의 '책임 정치'도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후보검증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공천은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책임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선거에서는 유권자 중심의 후보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에 교황 바오로 2세 기념비 들어선다...1984년 방문 '5월 아픔' 치유



1984년 5월 4일 무등경기장을 찾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차량 안에서 6만 5000여명의 시민에게 회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새 야구장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년)의 광주방문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세워진다.

5일 광주시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말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3루 쪽 외야 출입구 앞에 1984년 5월 4일 광주를 방문했던 교황 바오로 2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할 예정이다.

1984년 5월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해 내한했던 교황 바오로 2세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1980년 5월의 아픔을 겪은 광주를 방문해 화해미사를 집전했다. 교황 바오로 2세는 당시 무등경기장에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를 집전하고, 강론을 통해 "용서란 우리의 가난한 마음보다 더 위대한 행위다. 광주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영혼의 마음을 표현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또 1980년 5월의 비극적인 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광주 시민의 마음에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내리길 기원한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2005년 4월 2일 선종(善終)한 교황 바오로 2세는 오는 4월 27일 시성(諡聖)식을 통해 성인 반열에 오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